

"韓·日, 영토현안에만 매몰돼선 안돼"

입력 : 2013.03.01 03:06

'新 한일 관계' 학술회의 열려

일본에서 지난해 말 새로 등장한 국가주의 성향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권은 향후 한·일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28일 열린 '일본 신(新)정권의 등장과 한·일 관계 전망' 학술회의에 양국 전문가·학자·언론인 등 30여명이 모였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일본에서 사회당 등 혁신 세력이 급격히 퇴조하고 보수 세력이 확장하면서 일본 정치가 총체적인 보수화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노나카 나오토(野中尚人) 가쿠슈인(學習院)대학 교수는 "일본에 내셔널리즘(국가주의)이 강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장기 불황 등 경제에 대한 불만에서 나온 측면이 크다"면서 "(극우적 의견을 나타내는) '네트 우익' 같은 세력이 있고 정치가 보수화하고 있지만 이 같은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일로 일본이 특별히 이상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 28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열린 '일본 신(新)정권의 등장과 한·일 관계 전망' 학술회의에 참가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현대승 국민대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이정복 서울대 명예교수, 김준섭 국방대 교수, 미치가미 히사시 주한 일본대사관 문화공보원장./이명원 기자

이에 대해 이숙중 성균관대 교수는 토론에서 "일본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우경화'라고 한꺼번에 묶은 보따리를 해체해야 양국 협력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일 국민대 교수는 "일본에서 대개 역사 반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국가 안보 강화를 말한다"면서 "역사를 반성하면서 동시에 일본을 강하게 만들겠다고 한다면 일본에 대한 이웃 나라의 우려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바람직한 한·일 관계 발전에 대해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박근혜 정부는 영토 및 역사 문제 등 현안에만 매몰되지 말고 안정적인 지역 질서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상호 전략적 협력을 구축하는 동반자 관계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현대일본학회, 서울대 일본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이 주최하고 국제교류재단과 조선일보가 후원했다.

[인쇄하기](#)
[취소](#)